

#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양육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장하영\*, 이창식\*\*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한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ental health of parent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parenting efficacy: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time

Ha Young Jang\*, Chang Seek Lee\*\*

Doctoral Student,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Korea\*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Korea\*\*

**요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시간이 조절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여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아를 둔 부모였으며 총 315명이었다. 자료는 SPSS Win. Ver. 25와 SPSS PROCESS macro 4.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부적인 상관관계, 양육 효능감과 정신건강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양육시간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시간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거쳐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충시키는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양육 시간, 정신건강, 장애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reduce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raising disabled children by verifying whether parenting time mediates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ental health through parent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a total of 315 peop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SPSS PROCESS macro 4.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appli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raising disabled childre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efficacy,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ental health,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mental health. Second, parenting time moderated and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ental health through parenting efficacy.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enting time of parents raising disabled children plays a role in increasing the negative impact of parenting stress on mental health through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time, mental heal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eived 26 Mar 2024 Revised 04 Apr 2024

Accepted 11 Apr 2024

Corresponding Author: Chang Seek Lee  
(Hanseo University)

Email: lee1246@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낮은 결혼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양육 스트레스는 출산으로 인해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 그리고 육아를 하는 동안 반복되는 심리적 고통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볼 수 있어[1], 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정신건강은 건강한 삶과 가족 건강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2]. 다수의 연구에서도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있게 보고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낮출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긍정 변수를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어느 정도 악순환을 완화시켜 주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사이에 양육 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먼저 양육 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러한 결과는 일관된 결과이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4].

다음으로 양육 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 효능감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 효능감이 높을 때 가족 건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5]나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6].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이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 양육시간은 신체적 돌보기, 등하교시키기, 숙제봐주기, 이야기나누기,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그림그리기, 놀이터에서 놀기, 야외나가기 활동 등을 의미한다[7]. 자녀 양육시간이 증가하면 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양육 효능감이 높을 경우 양육 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며, 또한 양육시간에 따라서 양육 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달리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양육시간의 2배나 많아, 양육시간에 따른 양육 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8]. 더 나아가서 양육시간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시간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자녀의 양육시간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9,10].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에 대한 연구도 한 두편에 불과하다[8]. 더군다나 양육시간을 조절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는 국내외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시간이 조절 매개하는지를 파악하여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양육시간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다.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11], 학령기 전 아동의 어머니들이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안녕감을 보였다[12].

양육 스트레스가 안녕감 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청소년 엄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13].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모의 심리적 고통이나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양육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15].

이것 이외에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역기능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부모의 재양육 행동(re-parenting)이 생애 과업에 맞지 않는 늦은 시기(off-time)에 일어나고, 양육역할과 조부모 역할 간 역할 모호성으로 인해 양육 조부모들이 우울, 불안, 삶의 질 저하 등 정신건강 상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양육 스트레스 중 아동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족의 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주어서 가족건강성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17].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양육 스트레스도 높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 자녀의 출생은 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는 등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또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사회활동을 스스로 제약하며, 더욱이 장애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로 인하여 부모들의 대인관계는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행복감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18].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2.2 양육 효능감의 매개역할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거나 아동을 방치하는 부적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19], 장애 유아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은 낮고, 강제적인 양육행동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4]. 그리고 발달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온정·수용행동은 감소하고, 거부·제재행동과 허용·방임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한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 때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6].

나아가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에게 체벌을 적게 하고 더 수용적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다[21].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으면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자녀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의 심리, 인지, 사회성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게 된다.

## 2.3 양육시간의 조절효과

자녀 양육시간은 자녀에 대한 신체적 돌보기, 놀아주기, 학습지도 등에 보낸 시간을 의미하는데 학자들 간 다소 양육시간에 대한 주장이 차이가 있다. 자녀 양육시간은 신체적 돌보기, 등하교시키기, 숙제봐주기, 이야기나누기,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그림그리기, 놀이터에서 놀기, 야외나가기 활동으로 구분한다[7].

실제 자녀 양육시간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시간이 다른데,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평일 44분, 주말에는 아버지는 3시간 41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대부분 주말에 일어났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일에는 4시간 50분을, 주말에는 6시간 30분을 사용하며, 이 연구에서 취업모가 연구대상의 50%를 구성하고 있지만 평일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시간의 6.5배가 넘는 시간을 자녀양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0].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평일에 6시간 50분을, 주말에는 6시간 10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일반

아동의 양육시간의 2배에 해당되었다[8].

양육시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이 다를 것이며, 이는 또한 양육 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라도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양육시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되어 장애인 자녀 양육시간을 조절 및 조절된 매개변수로 적용하여 양육 효능감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모형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이르는 경로를 양육시간이 조절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Ver. 4.2의 14번 모델을 적용하였다[22].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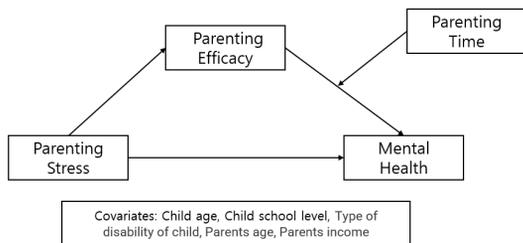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이며,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느린아이 부모 소통방)를 통해 총 2회차(1회차: 131명, 2회차:153명)에 걸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설문은 온라인폼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응답자 총 315명 중 무응답 및 연구 대상자

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응답결과를 한 31부를 제외하여 284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자녀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63.0%로 여자 37.0%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7~10세가 29.6%, 11~15세 38.7%, 16~19세 31.7%였다.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교가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21.1%, 고등학교 22.5%였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28.5%, 자폐성 장애 70.1%였으며, 아스퍼거 증후군과 정서장애가 각각 0.7%였다.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어머니가 95.1%로 아버지 4.9%보다 많았고, 연령은 36~40세가 6.7%, 40세 이상이 93.3%였다. 응답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 59.5%, 직업이 없는 경우 40.5%였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2.6%로 가장 많았다. 하루 양육시간은 6~7시간이 29.6%, 8~10시간 41.5%, 11~13시간 28.9%였다. 월 소득은 300~399만 원이 59.2%였고, 400만 원 이상은 40.1%였다.

### 3.3 조사도구

#### 3.3.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이한우(1998)가 아동특성 영역 8문항과 부모특성 영역 16문항을 축소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19][23]. 이 척도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많이 울고 짜증을 잘 낸다” 등 아동특성,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졌다” 등 부모 특성을 포함한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5였다.

#### 3.3.2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은 Gibaud-Wallston와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24,25]. 이 척도는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등 전체 9문항이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

서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0.919였다.

### 3.3.3 자녀 양육시간

자녀 양육시간은 신체적 돌보기, 등하교시키기, 숙제봐주기, 이야기나누기,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그림그리기, 놀이터에서 놀기, 야외나가기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조미환과 임정빈[7], 이연숙 등[26]의 척도를 참고하여 단일 문항으로 자녀 양육시간을 측정하였다.

### 3.3.4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Yesavage 등[27]이 개발하고 기백석[28]이 사용한 노인 우울척도의 모든 문항을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많이 설친다" 등 불안, 사회부적응, 우울 3요인을 측정하도록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6이었다.

### 3.3.5 통제변수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남·여), 연령(30세 이하,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직업유무(유, 무), 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월소득(100만 원 미만, 100~199만 원, 200~299만 원, 300~399만 원, 400만 원 이상)을 조사하였다. 자녀의 특성으로는 성별(남, 여), 연령(세), 학교급(초, 중, 고), 장애유형(지적, 자폐성, 기타)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시 매개 및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연령, 자녀 학교급, 자녀 장애유형, 부모 연령 및 부모 소득은 통제하였다.

## 3.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SPSS PC+ Win Ver. 25.0과 SPSS PROCESS macro Ver. 4.2를 활용하였고, 다음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초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비교 분석인 t-test와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과 T3를 활용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단순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4번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섯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SPSS PROCESS macro 14번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였고, 샘플 수는 5,000개, 신뢰 수준은 95%로 설정하였으며,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평균중심화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과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767, p<.01$ ), 정신건강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773, p<.01$ ). 또 양육 효능감은 정신건강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847, p<.01$ ). 반면 양육시간은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 효능감,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변수들 간 상관계수를 보았을 때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보다 높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을 종속변인으로,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시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때 VIF 값을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VIF 값은 양육 스트레스 2.433, 양육 효능감 2.436, 양육시간 1.007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 스트레스 즉, 아이의 기질이나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 문제 등을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않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하여는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은 평균 3.5점으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은 2.3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낮았다. 양육시간은 평균 9.063시간으로 많았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1	2	3	4
1. Parenting Stree	1			
2. Parenting Efficacy	.767**	1		
3. Parenting Time	-0.073	-.081	1	
4. Mental Health	-.773**	-.847**	0.06	1
M	3.5355	3.5966	9.063	2.3637
SD	0.7106	0.9221	2.0838	0.8031

\*\* $p < .01$

#### 4.2 양육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시간이 조절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4.2의 모델 14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였고, 신뢰 수준은 95%, 샘플 수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조건부 효과는 3개의 조건(M±SD, M)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시 독립변인(x)과 조절변인(w)은 평균중심화하였다. 분석 결과는 Fig. 2, Table 2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모형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B=1.0045, p < .001$ ), 종속변수모형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B=-.3584, p < .001$ ), 양육 효능감도 정신건강에 부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B=-.5813, p < .001$ ). 조절변수인 양육시간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B=-.0079, p > .05$ ), 상호작용항도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 $B=-.0155, p > .05$ ). 따라서 양육 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시간은 조절역할을 하지 않았다.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시간이 조절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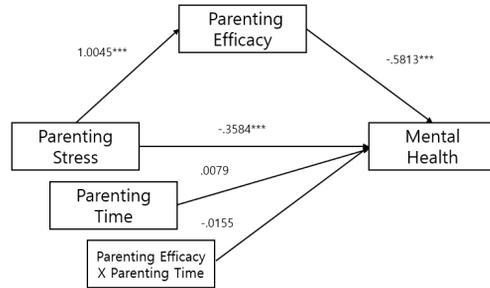


Fig. 2 Statistical model of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arenting time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time

Classification	Mediating variable model (DV: Parenting efficacy)			Dependent variable model (DV: Mental health)			
	Coeffect	SE	t	Coeffect	SE	t	
Constant	-3.347	.4058	-8.24***	3.687	.3263	11.30***	
IV Parenting Stress	1.004	.0510	19.68***	-.358	.0573	-6.25***	
Mediator Parenting Efficacy				-.581	.0437	-13.29**	
Moderator Parenting Time				-.007	.0126	-.63	
Interaction Parenting Efficacy × Time				-.015	.0135	-1.15	
Highest order test	R <sup>2</sup> change				.0012		
	F				1.3241		
Covariates	Child age	.009	.0243	.40	.0161	.0175	.92
	School level	-.071	.1022	-.70	-.064	.0739	-.87
	Type of disability	.075	.0799	.94	-.057	.0579	-1.00
	Parents age	-.128	.1579	-.81	-.138	.1140	-1.21
	Parents income	-.007	.0739	-.09	.063	.0532	1.19
Model summary	R <sup>2</sup>		.5934		.7625		
	F		56.2917***		85.7142***		

\*\*\* $p < .001$

먼저 양육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 = -.3584 (p < .001)$ 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인 조건부 간접효과는 양육시간이  $M-SD$ ,  $M$ , 그리고  $M+SD$ 일 때 모두 부트스트랩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하였다. 양육시간이 길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였다. 즉 양육시간이 길수록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았다. 반면 조절된 매개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조건부 간접효과와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간접효과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양육시간의  $M-SD$ ,  $M$ , 그리고  $M+SD$  조건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간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Table 3.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arenting time

Direct effect(Parenting stress → Mental health)					
Effect(B)	SE	t	LLCI	ULCI	
-.3584	.0573	-6.2541***	-.4712	-.2456	
Conditional indirect effect (Parenting stress → Parenting efficacy → Mental health)					
Parenting time	Effect(B)	BootSE	BootLLCI	BootULCI	
-2.0885(M-SD)	-.5514	.0712	-.6926	-.4088	
.0000(M)	-.5840	.0628	-.7071	-.4589	
2.0885(M+SD)	-.6166	.0657	-.7448	-.4840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SE	BootLLCI	BootULCI	
Parenting time	-.0156	.0132	-.0420	.0102	
Differences between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Effect1	Effect2	Contrast	BootSE	BootLLCI	BootULCI
-.5840	-.5514	-.0326	.0275	-.0878	.0213
-.6166	-.5514	-.0652	.0550	-.1756	.0426
-.6166	-.5840	-.0326	.0275	-.0878	.0213

\*\*\* $p < .001$

## 5.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선행연구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5,2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일반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여서 연구 결과가 다르다. 즉, 장애아동의 문제나 기질적인 행동을 부모가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13,30]. 반면 양육 효능감과 정신건강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효능감이 가족 건강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5,6]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양육 효능감은 높은 반면 정신건강은 낮기 때문에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양육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신건강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일반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간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정신건강이 다를 수 있다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복지적, 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조건부 간접효과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시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양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경유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시간이 양육 효능감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매개변수인 양육 효능감이 있으므로 해서 양육시간이 조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양육시간이 3조건( $M$ ,  $M \pm SD$ )에서 모두 유의미하다는 점이다. 이는 양육시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조건에서 유

의미하다는 점은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시간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Jung, T. Y. (2015).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on Relations among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253-279.
- [2] Kwak, B.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rotectors who have disabled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stress tolerance. Kwa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 [3] Yang, Y. J. (2018).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Co-parenting, and Parenting Stress o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 [4] Kim, S. K. (2010). Maternal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Kyungbook University Doctoral thesis.
- [5] Seul, K. O., Moon, H. J. (2011). The Study of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Of Preschool Childr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Health of the Mot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1), 23-40.
- [6] Ahn, S. H., Kim, S. Y.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Mother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 *Human Ecology Research*, 42(12), 219-230.
- [7] Ahn, J. H., Lee, D. B., & Nam, J. Y. (2022). The association between married men's housework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study.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8(1), 17-28.
- [8] Yang, S. Y., Kim, Y. K. (2013). A Study on Care Tim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17(2), 75-91.
- [9] Ahn, S. M., Lee, K. Y. & Lee, S. M. (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17(2), 93-119.
- [10] Yee, Y. H.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ime of Child Caring between Father and Mother.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6(3), 471-495.
- [11] Park, A. S. (2004).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Cheongjun University Master's thesis
- [12] Stewart, M. (2001). Towards a global definition of patient centred care: the patient should be the judge of patient centred care. *Bmj*, 322(7284), 444-445.
- [13] Huang, C. Y., Roberts, Y. H., Costeines, J., & Kaufman, J. S. (2019).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parenting stres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 1368-1378.
- [14] Lee, J. Y., Chun, J. S., & Jeon, H. S., & Chung, H. E. (2015).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on Depression of Mothers in Low-Income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2), 293-312.
- [15] Potocky, M., & Rodgers-Farmer, A. Y. (1998). Social work research with minority and oppressed populations: Methodological issues and innovations-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3(3-4), 1-3.
- [16] Landry-Meyer, L., & Newman, B. M. (2004). An exploration of the grandparent caregiver role. *Journal of family issues*, 25(8), 1005-1025.
- [17] Song, M. Y. (2018).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ther's Parenting Efficacy, Mother's

- Parenting Stress,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0(1), 139-162.
- [18] Kim, H. J. (2014). The Influence that Parents of Disabled Children's Parenting Stress has on Abuse of Disabled Children-The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1), 113-134.
- [19] Lee Han-woo. (1998). A Comparative Study of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 [20] Kim Ji-hye, & Jin Mi-kyoung.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8(4), 285-305.
- [21] Ha, M. J., Jang, Y. A. (2010).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on Self-efficacy and Daily Stres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1(1), 33-51.
- [22]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23]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24]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 [25] Shin, S. J. (1997).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26] Lee, J. H., Lee, Y. S. (2002). The Effects of Working Days of Married Men and Women on Their Time Use on The weekend.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0(4), 165-177.
- [27] Yesavage, J. A. (1983). Imagery pretraining and memory training in the elderly. *Gerontology*, 29(4), 271-275.
- [28] Ki,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2), 298-307.
- [29] Park, J. H. (2014). Effect of regulating the parent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t's mothers' parenting stresses and parenting behaviors. *Forum For Youth Culture*, 40, 93-121.
- [30] An, H. J. (2018).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Mother's Depression, and Early Child's Problem Behavior Using Latent Growth Mode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0), 931-951.

#### 장 하 영 (Jang Ha Young)



- 2024년 3월~현재: 한서대학교 노인 복지학과 박사과정
- 2024년 2월: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박사)
- 관심분야: 사회복지, 상담심리
- E-mail: besof@hanmail.net

#### 이 창 식 (Chang Seek Lee)



- 1993년 2월~현재: 한서대학교 교수
- 2010년 3월~현재: 한서대학교 다문화교육복지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평생교육, 느린학습자
- E-mail: lee1246@hanmail.net